

‘임실N치즈’ 부산 소비자 공략 순창 발효문화·떡볶이 홍보

자매결연지 부산진구서 임실N치즈 유제품 20% 판촉 행사·고향사랑기부 등 홍보

임실군이 대한민국 대표 치즈인 임실N치즈의 부산 소비자 공략에 나서 는 한편 임실방문의 해와 고향사랑기부, 임실군청 SNS 홍보까지 나서며 부산광역시에 임실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자매결연 도시인 부산진구에서 열린 김장철 맞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에 참가했다.

이날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여 지역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임실N치즈 유제품을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특별 판촉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SNS 구독 이벤트 등 임실 알리기에 나섰다.

임실군과 부산진구는 1999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26년간 돈독한 교류를 이어온 대표적인 상생 도시이다.

그동안 두 지역은 특산물 교류·농산물 직거래장터·문화 체육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우정과 신뢰를 쌓아왔다.

행사 기간 소비자들은 유제품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으며,



임실군은 지난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자매결연 도시인 부산진구에서 열린 김장철 맞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에 참가했다.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관심과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했다.

또한 임실N치즈·요거트 등 인기 답례품을 전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기부와 임실방문의 해, SNS 구독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부산 시민들에게 청정 임실의 농특산물과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를 홍보했다.

현장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즉석 기부를 유도하는 한편, 임실군 공식

SNS 구독 이벤트를 통해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도 끌어냈다.

군은 이번 부산진구 행사에서 이틀간 약 1,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임실N치즈의 브랜드 신뢰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심 민 군수는 “저지종 젖소 도입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임실N치즈의 우수한 품질과 가치를 전국 각지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

(제)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은 30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행사에서 순창의 전통 장류를 포함한 발효 식문화와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K-푸드의 중심 음식인 떡볶이를 함께 소개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홍보부스에서는 순창의 발효식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관광 굿즈 전시와 행사 안내 등을 통해 지역 관광 자원의 다양성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발효문화와 연계된 관광 콘텐츠를 동시에 전달함으로써, 순창을 단순한 식품 생산지가 아닌 '체험하고

즐기는 발효도시'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광주 롯데아울렛 월드점점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다음달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를 사전 홍보하기 위한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떡볶이 페스타 소개와 함께, 행사 분위기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수도권 및 광주권 소비자와 관광객에게 순창의 매력을 다각도로 알리고, 지역 행사에 대한 사전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의회, 신임실신계룡송전선로 입지선정 대응 간담회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28일 신임실개폐소·신계룡변전소 송전선로 입지선정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종민 임실군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원 6명과 임실군·진안군·완주군·금산군 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임실·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은 전남 신안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기 위해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 내 송전선로와 변전소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생활환경, 재산권, 자연경관 훼손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의회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인근 지자체 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동절기 대비 축산분야 재해 예방 현장점검 강화

순창군은 올겨울 갑작스러운 한파와 기온 변동이 잦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설·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 분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축산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읍·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재해 대응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축사 구조물의 안전성 △전기·난방시설의 관리 상태 △가축 질병 예방 조치 등 겨울철 주요 재해 취약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군은 이장회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농가에 기온 변화에 따른 대응 요령과 점검 항목을 안내하고, 대설주의보 등 기상 특보 시 실시간 문자 알림 서비스도 병행해 농가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111명 모집

남원시는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사요원 총 111명(조사관리요원 15명, 조사원 96명)을 오는 11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10월 22일 ~ 11월 18일)에 이어 실시되는 5년 주기의 전국 단위 통계조사로, 전국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형태 등을 파악하여 농림어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 조사이며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 조사요원은 18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 활용이 가능하고 통계조사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누리집 및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남원시청 기획예산과 방문 또는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5곳 선정

남원시농업기술센터가 전북자치도 공모사업인 2026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에 5개소가 선정되며 총사업비 2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청년들에게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온실신축, 에너지시설, ICT 장비 및 재배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총 48억원(11개소)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전북자치도 23명 모집에서 5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사업에서는 청년 창업농에게 초기 시설 투자 부담을 줄이고 영농시설 구축 기간을 2~3년 단축하여 농업농촌에 안정적 정착과 농가 소득 향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허우스 대비 수확량과 매출액이 20~30% 증가하여 농가소득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드림, 서리맞은 무엇 100명 기부

남원시는 인월면의 식품제조업체 정드림(대표 정경아)이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들을 위한 '서리맞은 무엇' 100병(시가 33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리맞은 무엇'은 정경아 대표 부부가 전통 방식으로 개발한 건강식품으로, 무 초침에 10가지 한약재를 더해 만든 환절기 보양식품이며, 병당 250g 용량의 무엇은 면역력 강화와 기침·감기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환절기 건강관리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경아 대표는 TV드라마 '전설의 고함'과 '춘향전'의 작가로 활동하다 2001년 자리산으로 귀농해 정드림을 설립, 생강초침, 꿀생강침, 무엇 등 다양한 전통 건강식품을 개발하며 꾸준히

남원시, 가축분퇴비 수출 선적식 가져

남원시는 29일 오후 1시에 운봉읍 바래봉 비료영농조합법인에서 가축분퇴비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번 수출은 축산환경관리원과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에서 한국산 퇴비 이용률이 낮은 베트남 달랏의 농업협동조합과 재배농가 등을 방문해 한국산 가축분퇴비의 품질과 생산력 검증을 위한 시범재배 제안을 승낙받아

달랏의 대규모 시설재배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며, 3개의 시범 재배업체가 참여한다.

바래봉영농조합법인이 입상 20톤과 분상 20톤, (원정도, 마이유기질비료) 각각 분상 10톤을 수출하여 총 60톤의 가축분퇴비를 선적, 선적 현장에는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을 비롯해 가축분유기질비료협회장, 시범재배 참여



업체,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바람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